

# 선어말어미 ‘-시-’의 통사구조상의 위치

박진호

줄고(1994: 29-31)에서는 선어말어미 ‘-었-’과 ‘-겠-’이 통사구조상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논한 바 있다. 거기서 내린 결론은 ‘-었-’이나 ‘-겠-’이 동사라는 통사원자<sup>1)</sup>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큰 단위와 결합한다는 것이었다.

- (1) ㄱ. [철수가 밥을 [먹-었-다]]  
ㄴ. [[철수가 밥을 먹]었]다]

다시 말해 (1ㄱ)이 아니라 (1ㄴ)이 올바른 구조라는 것이다.<sup>2)</sup> 이 견해는 사실 생성문법에 입각한 국어 통사론 논의에서 일반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.<sup>3)</sup>

- 
- 1) 통사원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줄고(1994: 4-9) 참조. 거기에서는 전통적인 단어 개념을 통사원자와 음운론적 단어로 해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.
  - 2) 줄고(1994)에서는 그에 대한 근거로 접속문에서의 ‘-었-’과 ‘-겠-’의 작용역(scope)과 관련된 현상을 들었으며, ‘-었-’과 ‘-겠-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한 바 있다.
  - 3) 임홍빈(1987), 유동석(1993), 시정곤(1994) 등.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논의들이 특정 이론 체계에 입각했을 때 상정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경험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그러한 성분구조 분석을 뒷받침하고 논증하는 데에는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이다.

한편 선어말어미 '-시-'가 통사구조상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견해를 생각해 볼 수 있다.

- (2) ㄱ. [[아버지가 책을 보-]-시-]-었-다  
 ㄴ. [아버지가 [책을 보-]-시-]]-었-다  
 ㄷ. [아버지가 책을 [보-시-]]-었-다

(27)은 임홍빈(1987), 시정곤(1994) 등의 견해로서 '-시-'가 주어까지 포함한 절 전체와 통합된다는 입장이다. (2ㄴ)은 유동석(1993) 등의 견해로서 '-시-'가 주어를 제외한 동사구와 결합된다는 입장이다.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(2ㄷ)의 입장을 취한다. 즉 '-시-'는 대개의 경우 동사 어간이라는 통사원자와 결합된다는 것이다.

이렇게 '-시-'를 다른 선어말어미와 다르게 취급하는 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. 우선 '-시-'는 의미론적 성격이 '-었-', '-겠-'과 차이가 있다. '-었-'이나 '-겠-'은 명제 전체를 자신의 작용역으로 하는 연산자(operator)이다. 따라서 이들이 주어까지 포함한 절 전체와 통합된다 고 보는 견해가 의미론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다. 그러나 '-시-'는 명제 전체를 작용역으로 삼는다고 보기 어렵다. '-시-'는 명제를 수식한다기보다 행위 또는 상태, 즉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의미를 수식한다고 생각된다.

'-시-'가 다른 선어말어미들에 비해 특별히 동사 어간과 밀접하다는 느낌은 다른 여러가지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. 적어도 현대 국어에서는 '-시-'가 항상 다른 선어말어미들보다 앞에 온다. 그리고 소위 절대문에 다른 선어말어미들은 나타나지 않는데 유독 '-시-'만은 나타날 수 있다.<sup>4)</sup>

- (3) ㄱ. 린드버그 대서양을 횡단하다  
 ㄴ. 1443년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다

---

4)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(1983) 참조.

부사형어미 '-아/어', '-게', '-지', '-고'는 다른 선어말어미는 앞에 들 수 없는데 유독 '-시-'만은 앞에 들 수 있다.

- (4) ㄱ. \*김선생님은 아직 퇴근했지 않(았)다
- ㄴ. 김선생님은 아직 퇴근하시지 않았다

그리고 다른 선어말어미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'-시-'는 '계시-', '주무시-', '잡수시-' 등 동사 어간의 보충법을 유발하기도 한다. Bybee(1985)의 용어를 빌리면 '-시-'는 다른 선어말어미들보다 동사 어간에 대한 관여성(relevance)이 높다고 할 수 있다.

본고에서는 특별히 '-시-'에 의해 유발되는 동사 어간의 보충법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. '-시-'가 절 전체나 동사구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 어간과 결합한다고 보는 것이 보충법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유용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. 이 논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'성분(consituent)이란 무엇인가'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함께 얹히게 된다. 따라서 성분에 대한 본고의 입장이 갖는 이론적 함축도 생각해 보려 한다.

'계시-'는 '있-(시)-'의 보충법이고 '주무시-'는 '자-(시)-'의 보충법이라는 식의 기술을 흔히 볼 수 있다. 그리고, '계시다', '주무시다' 등은 특수 어휘에 의한 높임법의 예라고 기술되기도 한다.<sup>5)</sup> 이런 진술들에서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'계시-', '주무시-' 등이 각각 하나의 어간이라는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. 그런데 여기서 우선 확실히 해 두고 싶은 것은 '계시-'가 어간이 아니라 어간은 '제-'이며 그 뒤의 '-시-'는 선어말어미라는 것이다. 달리 말하면 '계시-'가 하나의 통사원자인 것이 아니라 '계-'와 '-시-'가 각각 별개의 통사원자라는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근거는 '계시-'의 '-시-'가 여느 '-시-'와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이다. 중부지역어에서 어미구조체 '-셔요'('시-어-요')는 '-세요'로 교체된다. 이 교체는 '-시-'가 선어말어미 '-시-'일 때만 일어나지, '-시-'가 어간의 일부일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('가셔요'→'가세요', '마셔요'→'마세요'). 그런데 '계셔요'는 '계세요'로 교체

5) 고영근(1987), 남기심 · 고영근(1985) 등.

되므로 ‘계시-’의 ‘-시-’가 선어말어미 ‘-시-’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. 따라서 동사 어간 ‘있-’은 선어말어미 ‘-시-’ 앞에서 보충형 ‘계-’로 교체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기술이다.<sup>6)</sup>

‘있-’이 ‘계-’로 교체되기 위해서는 자기 뒤에 선어말어미 ‘-시-’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. 즉 선어말어미 ‘-시-’는 ‘계-’에게 可視的(visible)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. 이것은 보충법을 보여주지 않는 다른 동사들도 마찬가지이다. ‘보-’는 ‘-시-’ 앞에서도 보충형으로 교체되지 않을 뿐, ‘보-’와 ‘-시-’의 구조적 관계는 ‘계-’와 ‘-시-’의 구조적 관계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. 따라서 일반화하여서 선어말어미 ‘-시-’는 동사 어간에 대해 가시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.

문제는 (27) 또는 (28)의 구조에서 동사 어간 ‘보-’가 ‘-시-’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. (27)에서 ‘보-’와 ‘-시-’는 자매 관계에 있다. 자매 관계는 통사구조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므로 (27)에서 ‘보-’가 ‘-시-’를 볼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. 그런데 (27)이나 (28)에서는 ‘보-’

6) ‘계시-’ 전체가 통사원자가 아니라 ‘계-’와 ‘-시-’ 각각이 통사원자라는 것은 본 고의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전제되어야 할 사실이다. 중세국어의 ‘거시-’에 대해서도 어간은 ‘거-’이고 ‘-시-’는 선어말어미라고 해야 한다. ‘거시-’의 ‘-시-’가 선어말어미 ‘-시-’와 똑같은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. 예를 들어 ‘거시-’에 동명사어미 ‘-음’이 붙으면 ‘거삼’으로 실현된다. 어간이 ‘거시-’라면 ‘거승’ 또는 ‘거승’이 되어야 할 것이다(‘이시-’의 동명사형 ‘이승’, ‘이승’ 참조). 또한 ‘거시-’의 ‘후쇼서’체 명령형이 “거시쇼서”가 아니라 ‘거쇼서’임도 주목할 만하다.

보충법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Bybee(1985)의 논의가 참고된다. 현대영어에서는 ‘go’의 과거형이 보충형 ‘went’인데, 이를 시기에는 ‘went’가 ‘wend’라는 별개의 동사의 과거형이었다고 한다. 즉 원래는 별개의 어휘소로서 각각 자신의 系列(paradigm)을 가지고 있던 두 어휘소가 相補의인 굴절형들을 제공하여 하나의 계열을 형성함으로써 보충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. 이러한 논의는 한국어의 ‘있-’과 ‘계-’가 보여주는 보충법의 발생 과정을 탐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. 15세기의 ‘이시/잇-’과 ‘거-’는 이미 보충법의 형성이 거의 완성된 단계로 보인다. 어간형 ‘이시/잇-’의 출현 환경과 어간형 ‘거-’의 출현 환경이 거의 완전히 상보적인 것이다. 그러나 고려시대의 �訛 자료나 吏讀 자료에는 15세기의 문법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‘거-’(‘가’, ‘在’)가 나타난다. 이것은 ‘거-’가 아직 ‘이시/잇-’의 보충형으로 완전히 자리잡지 않고 독립된 별개의 동사로서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.

가 '-시-'의 조카이다. 이런 구조에서 '-시-'가 자신의 자매 속에 깊숙히 묻혀 있는 동사 어간 '보-'에게 가시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.

조카가 이모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찌보면 公理 비슷한 것이어서 그렇다고 가정하고 이론체계를 세울 수도 있고 아니라고 가정하고 이론체계를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. 그렇게 해서 구성된 두 이론의 優劣은 우선 경험적인 자료에 의해 판정되어야 한다. 경험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념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. 즉 개념적으로 더 제약되어 있는 이론이 선호되어야 한다. 당연히, 조카가 이모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이론, 즉 가시성을 자매 관계로 제한하는 이론이 그렇지 않은 이론보다 더 제약적이다.

조카가 이모를 볼 수 없다고 보는 이론은 '계시-'와 '있으시-'의 흥미로운 교체 현상에 대해 재미있는 설명을 제공해 준다.

(5) ㄱ. 아버지가 집에 계시니/\*있으시니?

ㄴ. 아버지가 돈이 있으시니/\*계시니?

(5ㄱ)에서는 동사 어간이 '-시-'의 자매여서 '-시-'를 볼 수 있으므로 '있-'은 반드시 '계-'로 교체되어야 한다. 반면에 (5ㄴ)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.

(5') ㄴ. [아버지가 [[돈이 있]으시]]니?

즉 (5ㄴ)에서는 '있-'이 '-시-'의 조카인 것이다. 따라서 '있-'은 '-시-'를 볼 수 없고, 그래서 '계-'로 교체될 수 없는 것이다.

이와 유사한 현상을 '-ㄹ 수 있-' 구문에서도 볼 수 있다.

(6) ㄱ. 김선생님, 내일 나올 수 있으세요?

ㄴ. \*김선생님, 내일 나올 수 계세요?

(67)에서 '-시-'는 '내일 나을 수 있-'이라는 성분과 결합한다. 따라서 '있-'은 자신의 이모 '-시-'를 볼 수 없으므로 '계-'로 교체될 수 없는 것이다.

요컨대 '-시-'는 동사에 붙어서 그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 또는 상태에 어떤 자질(이 자질을 일단 [+존경]이라고 해 두자)을 덧붙여 준다고 할 수 있다. 그런데 '-시-'가 항상 동사 어간이라는 통사원자와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. (5n), (6)에서 보듯이 '돈이 있-', '내일 나을 수 있-'이라는句와 결합할 수도 있다. '-시-'가 덧붙여 준 [+존경]이라는 자질은 그 동사(또는 동사의 투사)의 주어에 의해 충족된다. (5n)에서는 '돈이 있-'의 주어인 '아버지가'가 이 자질을 충족시킨다. 반면에 "아버지가 돈이 계시니?"가 비적격한 이유도 말끔히 설명된다. 동사 어간이 '계-'로 교체되어 있으므로 이때 '-시-'는 '돈이 있-'과 결합한 것이 아니라 '있-'과 결합한 것이다. '있-'의 주어인 '돈이'가 [+존경] 자질과 충돌을 일으켜서 비문이 된 것이다.

현대 생성문법은 문법의 힘을 줄이고 이론을 좀더 제약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. 이런 작업은 특히 변형 규칙에 대해 많이 행해져 왔다고 할 수 있다. 그에 비해 성분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의 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된다. 그래서 사실 통사구조상의 교점 간의 관계에 대해 지배결속이론에서는 너무나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. 예컨대 이모가 조카를 격지배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.

#### (7) 철수가 [영희를 예쁘다고] 생각한다.

(7)에서 '생각하-'가 조카인 내포문 주어를 지배하여 대격을 할당한다는 것이다. 그러나 본고의 이론에서는 '생각하-'가 내포문 속에 들어 있는 요소에게 격을 줄 수는 없다. '영희를'의 대격은 이 요소가 '생각하-' 또는 '생각하-'의 투사와 자매 관계에 있다고 가정해야 설명할 수 있다. 즉 (7)의 구조는 (7')으로 대치되어야 한다.

## (7') 철수가 [영희를 [예쁘다고 생각하-]]

'영희를'은 '예쁘다고 생각하-'라는 복합 서술어(complex predicate)와 결합하는데 '예쁘다고 생각하-'의 핵이 '생각하-'이므로 '예쁘다고 생각하-' 전체도 대격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.<sup>7)</sup>

결국 본고는 성분구조상의 교점 간의 관계에 대한 局所性 조건(locality condition)을 탐구해 본 셈인데, Williams(1981)의 원자 조건(Atom Condition)도 이와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된다.<sup>8)</sup> 다만 본고의 논의가 조카가 이모를 볼 수 없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Williams(1981)의 원자 조건은 이모가 조카를 볼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 또한 원자 조건에서는 자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. 자질이 딸로부터 어머니로 삼투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는 이모가 조카를 볼 수 있는 듯이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. 그러나 원자 조건이 옳다면 이것은 이모가 조카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자매에게 삼투된 자질을 본 것일 따름이다. 자질의 삼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원자 조건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. 어떤 자질이 삼투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非核의 자질이 삼투될 수 있는지, 즉 자질 삼투에 대한 제약이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.

7) '예쁘다고 생각하-'라는 복합 서술어가 형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'예쁘-'의 의미상 주어가 표면에서 모문 목적어가 된 셈이다. 이런 구문을 초기 변형문법에서는 引上 변형으로 다루었었다. 졸고(1994: 69-77)에서는 논항의 전수 현상으로 다룬 바 있다.

8) 'A restriction on the attachment of  $af_x$  to Y can only refer to features realized on Y.'(Williams 1981: 253) 이 조건은 형태론에 적용되도록 제안된 것 이지만 그 근본 취지는 통사론에서도 음미할 만하다고 생각된다.

### 참고 논저

- 고영근(1987), 보충법과 불완전계열의 문제,『국어 형태론 연구』, 서울대출  
판부.
- 남기심 · 고영근(1985),『표준 국어문법론』, 탑출판사.
- 박양규(1975), 존칭체언의 통사적 특징에 대하여, 진단학보 40.
- 박진호(1994),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, 국어연구 123.
- 시정곤(1994),『국어의 단어형성 원리』, 국학자료원.
- 유동석(1993), 국어의 매개변인 문법, 서울대 박사학위논문.
- 임홍빈(1983), 국어의 '절대문'에 대하여, 진단학보 56.
- \_\_\_\_\_ (1987),『국어의 재귀사 연구』, 신구문화사.
- Bybee, J. L.(1985), *Morphology*, John Benjamins.
- Williams, E.(1981), On the Notions "Lexically Related" and "Head of a Word", *Linguistic Inquiry* 12.